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15주일 (농민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녹) 연중 제15주일 (23. 7. 16.)

* 오늘 전례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1995년 추계 정기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마다 7월 셋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지내고 있다. 이날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도록 이끈다. 각 교구에서는 농민 주일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하여 농업과 농민의 소중함과 창조 질서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55,10-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0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씨가 돌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11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 제2독서(사도 바오로 로마서 8,18-13):

형제 여러분, 18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1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22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3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 복음(마태복음 13,1-9):

-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

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살피시어, 주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농민들을 보살피 주시어, 생태 위기와 함께 닥친 자연 현상의 변화에도 잘 대처하게 하시며, 수고의 합당한 대가를 얻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모든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 서로 존중하고 아낌없는 도움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보듬어 안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입당 :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봉헌 :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성체 : 188 (천사의 양식)
178 (성체 앞에)
파견 : 63 (온세상에 전파하리)

공지 사항

† 농민을 위한 기도 †

-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 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임종옥 바오로 신부님 환영합니다.
- ♣ 다음 주일(23일), 왜관 성 베네딕토 수도회 최춘배 시몬 신부님 오셔서 함께 미사 집전해주십니다.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87.5 • 교무금 € 0.00